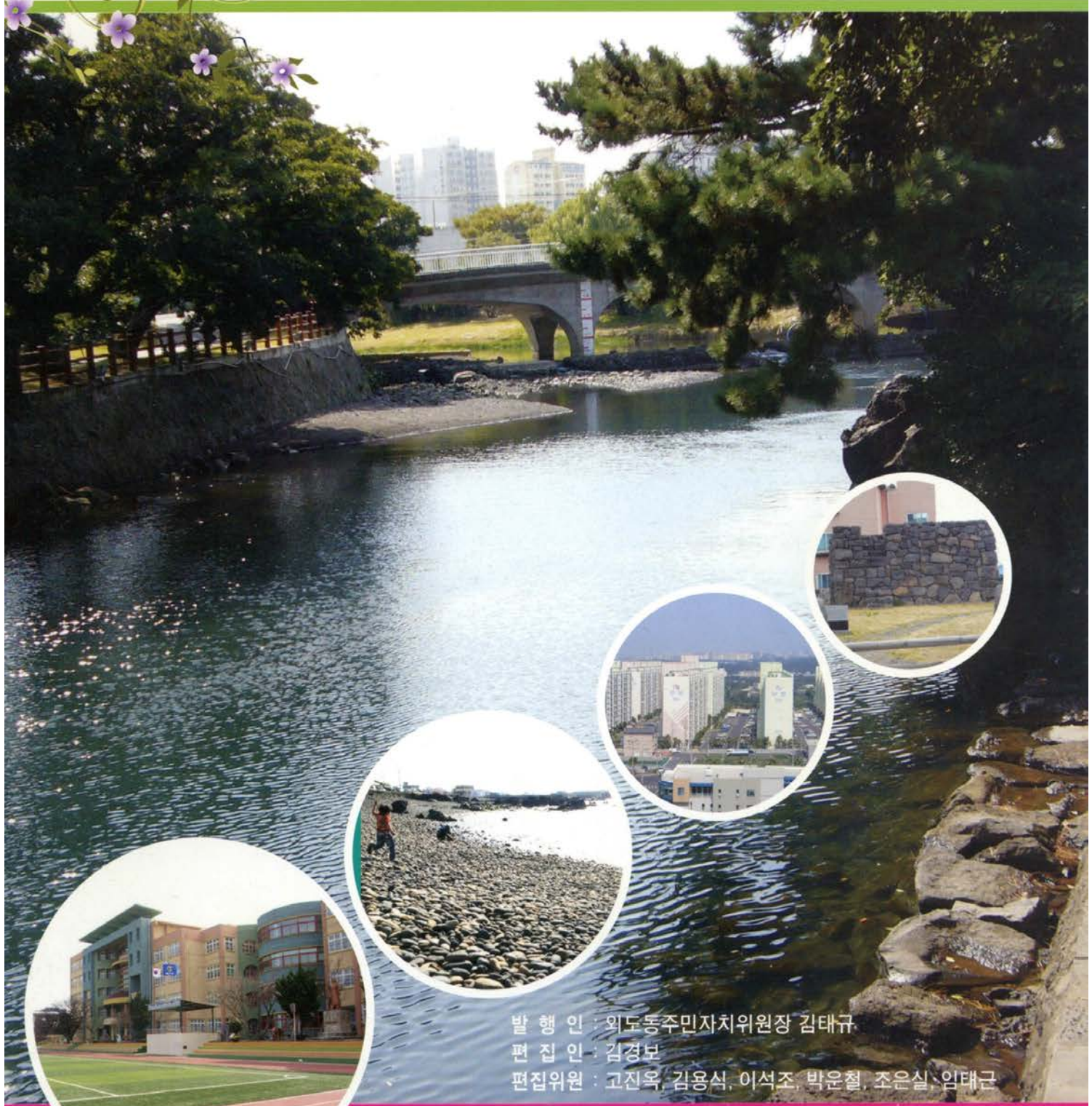


외도동 소식지

제2호 | 2011. 12



발행인 : 외도동주민자치위원장 김태규
편집인 : 김경보
편집위원 : 고진옥, 김용식, 이석조, 박운철, 조은실, 임태근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외도동 일반현황

지역특성

국제자유도시 제주시 도심과 서부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농어촌의 어우러진 도·농 복합 주거지역
- 수정사지, 고인돌, 역암층 등이 잘 보존된 향토문화 유적지
- 월대천, 내도 알작지 등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관광지

연혁

- ◎ 1914년 제주면에 편입
- ◎ 1931년 제주읍에 편입
- ◎ 1955년 제주시에 편입
- ◎ 1962년 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상 외도동(법정동: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 ◎ 1978년 8월 1일 행정구역개편 (법정동: 외도1동, 외도2동, 도평동, 내도동)

면적

- ▶ 면적 : 8.4km²(제주시의 0.86%) ▶ 경지 : 6.1km²(72.6%)
- ▶ 임야 : 0.72km²(8.6%) ▶ 대지 : 0.4km²(4.9%) ▶ 기타 : 1.18km²(13.9%)

가구 및 인구

5,604세대 15,548명(남 7,726, 여 7,822)

행정구역

19개통 136개반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현원)	16 (14)	1 (1)	3 (3)	4 (3)	3 (4)	2 (0)	3 (3)

기관 및 시설현황 (15개소)

초등학교	치안센터	수산물연구소	금융기관	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농아복지관	실내수영장	유도회관	인조잔디축구장
2	1	1	3	1	1	2	1	1	1	1

인 사 말



외도동주민자치위원장
김 태 규

벽찬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11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노을 속에 지는 해가 붉은 빛을 더 하듯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더욱 깊습니다. 그러나 2011년은 우리 제주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새벽 우리 모두는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지켜보는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추진 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전화투표 성금을 기탁해 주신 동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고장을 더욱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탄생한 외도동소식지가 이번에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동민 모두의 가슴에 소통의 길을 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과 함께 외도동의 화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자율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도동 각 자생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도·농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 심곡2동을 방문하여 상호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참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전화투표성금도 기탁 받았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직거래 판매하기로 약속하는 등 상호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도동 발전 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여 우선사업을 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외도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두 번째 연대해안 친수공간 조성, 세 번째 내도동 해안도로 개설 및 취락밀집지역 정비, 네 번째 국도 대체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외도동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외도동의 지역문제와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외도동소식지 제2호가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되어 동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는 한 그루의 작은 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함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1년 12월

축 사



외도동장
김 태 경

어느덧 2011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1년 동안 정리하고 내년을 기약해 볼 수 있는 외도동 소식지가 나오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외도동 소식지발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외도동은 공항·제주시 도심과의 접근성, 맑은 물이 샘솟는 하천, 바닷길을 산책할 수 있는 해안 등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제주시 여느 지역보다 빠르고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애월읍 무수천 ~ 월대 ~ 내도 알짜지를 경유하는 제주올레 17코스가 개장하여 많은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도동 주민센터에서는 보다 살기 좋은 마을, 다시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사계절 꽃피울 수 있도록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클린데이 운영, 클린하우스 가꾸기 운동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 결연사업, 사랑의 김장담그기, 외도 고향은 영, 사랑의 집수리 봉사대 운영으로 어려운 형편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불우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며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의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도동민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도동은 2012년 내년에도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외도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샘솟는 마을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각종 어류가 노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는 현장학습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로, 올레꾼과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지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도동에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그동안 불편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비좁고 노후한 주민센터로 인하여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제 역할을 못했지만 내년 새로운 청사가 개소하면 외도동민 모두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항상 낮은 자세에서 근무하는 외도동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응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태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도동 소식지가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축 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김 진 덕

토끼의 해인 2011년 신묘년이 저물어 갑니다.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부지런한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문화적 욕구해소, 외도동 발전 토론회 개최, 외도동 종합발전계획위원회 발족 등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2호 외도동 소식지를 발간함에 다시 한 번 놀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지역은 신제주 배후지역으로서, 문화·자연자원이 많은 곳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평소 외도지역의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바램을 담아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도주민들이 편하게 즐겨찾는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외도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외도천 생태복원 사업, 연대해안 친수공간사업, 올레꾼과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내도 해안도로 개설,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확대, 이밖에도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 지원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외도발전 정책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외도동장님과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외도지역 발전의 주체는 주민 여러분들이며, 주민들의 구심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외도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외도동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외도동 소식지가 외도주민들의 회노애락을 담는 소통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축 사



제주특별자치도회의원
박 주 희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가 외도동의 현황과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 등을 담은 외도동 소식지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민 화합과 외도동의 발전, 그리고 이웃간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참으로 소중한 매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이웃은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은 없다”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외도동 소식지는 이웃간의 벽을 허무는 주민들의 친근한 벗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점점 사라져가는 인정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동민 여러분들의 삶을 살찌워 줄 것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소식지를 발간해 주신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외도동은 제주시의 서쪽 관문이자 위성도시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역사와 문화와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도 그 중심적인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 동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도의원으로서 우리 외도동의 발전을 일구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가 외도동민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마을 소개

제주시 외도일동 본향당 팽나무

이 팽나무는 우령마을 본향당터에 있고 당의 신목이다.

팽나무 주위 16㎡ 정도의 면적에 나지막하게 잡석담으로 에워싼곳이 본향당이다. 마을 부녀자들은 가족이 병들거나 액운이 나쁘다고 하면 제수를 마련하고 무당을 대동하여 이당에 찾아가서 이 팽나무앞에 자리를 깔고 차려온 제물을 올리고 당신에게 화액을 막아주고 병을 완쾌하여 줄것을 빌고 인정을 건다하여 3색의 형짚과 속지 실등을 팽나무에 걸기도 하였다. 이 본향당 신은 세금쌍포는 김씨 하르방이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생산, 물고, 호적을 관장 한다고 한다. 이 당에는 당집이 있었는데 이 형상 목사때(1702년) 당집을 불태워 없어 졌다고 한다. 국치시대때 당을 파괴하여 당곳이 중단 되었다고도 하였다.

광복을 맞이한 후부터 1961년까지는 음력 정월보름부터 수일간 마을에서 주간하고 무당들로 하여금 당굿과 고사를 행하였고 1962년에는 경비문제로 당굿을 하지않고 고사만을 봉제하였고 그이후 부터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미신을 타파한다면서 당을 파괴하고 당굿과 고사가 중단되었다. 일부 부녀자들이 남몰래 당을 찾아가 기원을 하였는데 근래에는 당을 찾는 사람이 없고 도시계획 시행후 이당의 부지는 어린이공원 제69호로 되어있고 당의 신목인 팽나무는 수령 약300년, 나무둘레 2m80cm, 높이 10m로 소나무 1구는 수령이 약150년, 나무둘레 2m25cm, 높이 10m, 나무2그루만 남아있고 본향당 사적임을 표석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팽나무 1그루는 2011년 11월 2일자로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남은 소나무 1그루도 보호수로 하루빨리 지정되어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외도일동 마을회장 박 운 철

도평동 마을 설촌유래

도평동 마을의 설촌유래는 약 서기 1400년도부터 마을이 설촌되었다고 보고 있다. 탐라순력도 1702년 속종 28년의 기록을 보면 "평대촌"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평대촌 다음 일재강점기에 도평리라고 개칭되었다. 도평동 마을은 상동, 하동, 신산동, 창호동, 와평리, 동사라리, 서사라리, 버죽이, 새비리, 현사동(조선말엽)으로 되어 있었다. 4.3사건후 상동, 하동, 신산동, 창호동, 와평리, 동사라리, 서사라리는 원상복구가 되었고 버죽이는 해방당시 자연폐동이 되었고, 새비리(지금월산)는 노형동으로 속하였으며, 현사동은 거리가 멀고 일주도로 보수출역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분리되었다고 도평항사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조시대에는 도평리 향사가 신산동 원장내 동쪽에 있었다가 하동 팽나무있는 쪽으로 옮겼고 다음에 학교관사자리로 옮겼다가 4.3사건당시 전소되었다고 한다.

우리 도평마을은 옛날부터 한문교육을 주로 해 왔으며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상동, 하동, 신산동, 창호동에서 각각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역대 한문선생님을 보면 외부에서 초청한문선생은 6명, 우리마을 한문선생은 8명으로 14대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마을은 선조들이 한문서당에서 한문공부만 해오다가, 당시 제주시에는 북국민학교, 화북국민학교 2개교만 있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터전이 없어서 배울 수 없었다.

우리도평은 옛부터 한문을 많이 한 유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재강점기에도 자녀교육을 위하여 1927년도에 전라남도 인가로 "명진학숙"이라는 교육전당 기관이 설립되었다. "명진학숙"을 개학하여 해방될때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인접동인 내도, 외도, 해안, 노형까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였다. 4.3당시 "명진학숙"학교교사는 이때 전소 되었다.

1927년 4월 1일부터 1942년 4월까지 하숙장(교장) 7대가 역임하였고 교사는 21명이 역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후 다시 고향유지들이 초가지붕학교를 세우고, 1955년 4월 25일 도평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나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학생수가 없어 1983년 3월 1일자로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으로 되었다가, 애향과 교육열에 앞장선 선후배의 노력으로 올해 2011년 3월 1일 자로 도평초등학교로 승격되어서, 지금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초등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향을 아끼고 교육열을 불태우던 선조들의 노력이, 1927년 전라남도 광주교육청을 3번이나 찾아가면서(그당시 교통이 불편) 학교기관 설립인가를 받아왔다는 열의와 숨은 노력에 다시한번 고개가 숙여진다.

도평마을회장 김영호(도형동향토지에서 발채하였음)

마을 소개

연대마을

약 350년전에 연대란 이름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연대마을은 임진왜란때 왜침을 막기 위하여 망루대에 봉화를 피웠는데 그 연기가 항상 마을 주변에 감돌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처음으로 (정씨) (고씨) (김씨)

가 거주 하였고 후에 (박씨) (한씨) (이씨) (전씨)가 집성촌을 이루웠다고 한다. 탐라 순력도(1702)에 외도2동의 "연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옛날에는 주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연대마을은 바닷가에 넓은여가 있어서 "넓은여"라고도 부른다. 연대마을 동쪽 입구에 "마이뭇"이 있어 가막샘(가막세기)에서 솟아나오는 담수와 바다에서 들어오는 해수와 섞여있다. 마이뭇은 송어의 자연 산란 부화장이 되고 있으며 (민물장어)(은어)와 여러가지의 생물과 고니등 희귀 철새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유명하다.

외도팔경에 한 시중에도 "넓은여" "마이뭇" 두곳이 실려있다. 연대마을은 해안 풍경이 아름답고 해산물도 풍부하며 지금은 거대한 방파제 시설로 구축되어 좋은 어항을 이루고 있다. 요즘은 왜래 강태공들이 모여들어 낚시대를 드리운 풍경도 장관이다. 현재는 80여세대에 300여명의 인구로 연대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이뭇에 노는 고기는 외도8경의 하나로 '마지약어(馬池躍魚)'라는 시가 전해진다.

석우 선생님의 사회활동 당시의 시

馬地躍魚(마지약어)
마이뭇의 뛰는 물고기

馬地深廣幾多漁(마지심광기다어)

마이뭇 깊고 넓으니 얼마나 고기가 많은고

得所悠然藥有餘(득소유연약유여)

이곳 저곳에 유연히 고기들이 즐기고 남음이 있네

日暖苔磯永解後(일난채기영해후)

날씨 따뜻하고 둔치의 이끼가 끼니 이미 얼음이 풀린뒤라.

朝寒?渚月初(조한빈저월명초)

조수는 차나 부평초 돛은 물가에 달빛은 밝아 오도다.

沆?在藻?相忘(항찬재조훈상망)

더욱이 고기는 듬북에 잠겨 모든 것을 서로잊고

游戲動荷自緩緩(유희동하자완서)

물에서 놀며 움직이니 연잎도 천천히 흔들 거린다.

往往漁人張?獲(왕왕어인장강획)

가끔 어부가 그물을쳐 고기를 잡으매

斯間滋味正如河(사간자미정여하)

이러한 사이 정말로 참맛이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



'마이뭇은 깊고 넓어서 고기가 많은데 / 얻은 바 유연함이나 / 즐거움이 남아있도다 / 날이 따뜻해지자 물가의 이끼가 서서히 풀린뒤 / 조수는 차지만 물가의 개구리밥은 달 밝음에 싹이 나는구나 하물며 물래 듬북속에서 서로의 망상을 날려버리고 / 유희에 연잎도 서서히 움직이더라 / 오고가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을 올리니, 이 가운데 참맛이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

자료발췌 마을회 총무 김택중

마을 소개

외도2차부영아파트

제주시 우평로 318번지에 위치한 제주외도2차부영아파트는 9개동 892세대가 모여 사는 곳이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행복이 가득한 아파트 정다운 이웃”을 만들기 위해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장 박원흡)와 합심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단지내 자생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새마을문고(조은실 문고회장)에서는 열린문화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문화강좌로 톨페인트, 칼라크레이, 예쁜손글씨를 방학기간에 실시하였으며 올해 대통령기 독후감대회 제주시지역예선에서 최우수문고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부녀회(고순옥 회장)에서는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요가교실, 어린이벨리 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아파트 대청소 봉사, 경로당 어르신 점심제공과 청소봉사, 매년 1회 부녀회원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박창도 회장)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기체조, 매년 1회 어르신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 하였다.

청년회(문동원 회장)에서는 아파트단합대회를 대표회의 도움을 받고 “외도2차 부영아파트 하니되는 날”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단합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년 2회 물물장터를 부녀회와 같이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 간에 필요한 물건을 교환·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의 10%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구성, 아파트 단지내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순찰,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조성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 경로당 효도관광



▲ 경로당 청소년 충효교실



▲ 아파트 무사안녕 기원제



▲ 매년 실시하는 신년하례회



▲ 부녀회 물물장터



▲ 부녀회 아파트 대청소 봉사



▲ 외도동 한마을 단합대회 우수



▲ 우리 아파트 청년회원



▲ 관리실 소방훈련

제7기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개요

- ▶ 사업위치 : 제주시 외도2동 233-4외 2필지
- ▶ 대지면적 : 1,938.3m² ▶ 건축연면적 : 1,874.59m²
- ▶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비 : 3,185백만원



외도동 주민센터
조감도

외도동 자생단체 회원 명단

통 장 협 의 회 회장 : 조은실
총무 : 이한용 감사 : 박운철
회원 : 김치웅, 이석조, 강순신, 박재수, 소기범, 송시영, 이태석, 홍병관, 홍영림, 장영태, 김광채, 김명철, 이두선, 이영숙, 김경보, 오지윤

노 인 회 분회장 : 배광경 부분회장 : 강문정
감사 : 박창도 사무장 : 오용택
10개 외도1동 : 김용국 부영1차 : 신옥예 부영2차 : 박창도
경로당 아름마을 : 권호성 절물 : 배광경 월대 : 이원신 연대 : 전철규
회장 내도 : 강병주 도평 : 박옥순 신산 : 송창형

마을 회장 (아파트자치회장) 외도1동 : 박운철 월대 : 이한용 절물 : 이광식 연대 : 이석조 내도 : 강순신
도평 : 김영호 신산 : 송시영 부영1차 : 최복석 부영2차 : 강창석 아름마을 : 최양규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회장 : 김기호 부회장 : 박운철, 안창준
총무 : 김재일 감사 : 고경수, 최정부
회원 : 김윤희, 김창은, 고영완, 고찬주, 이한용, 윤태선, 윤부연, 윤평윤, 김원호, 김치웅, 오봉현, 명한영, 김경보, 이상용, 양안식

외도동새마을부녀회 회장 : 김유자 부회장 : 이순덕
총무 : 송영옥 고문 : 김진화
회원 : 이영숙, 김후진, 김미자, 부신옥, 이규정, 이정숙, 윤복실, 강선옥, 한순자, 현영희, 윤성이, 김순자, 안중화, 오근숙, 안인옥

바르게살기외도동위원회 위원장 : 고영택 부위원장 : 이한용, 김명순
감사 : 한석화, 임근희 총무 : 김진옥 자문 : 신민식
위원 : 신창수, 부신옥, 오임생, 김분순, 김원호, 안성아, 부수열, 김정남, 김석진, 고은향, 김윤희, 오근숙, 이경희, 신만진, 고승보, 김경철

외도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 이승재
부회장 : 오임생 총무 : 김성훈
회원 : 김창주, 고찬주, 부신옥, 박영옥, 신민식, 윤평윤, 이성수, 윤덕영, 이정숙, 홍복자, 한영수, 김경자, 강미숙, 김영희, 김창열, 이대원, 송재덕, 고상봉, 백대홍, 김정남

외도동방위협의회 의장 : 김태경 회장 : 정병식
부회장 겸 재무 : 방주원 감사 : 고진옥
위원 : 강순신, 김기호, 김영호, 김용학, 김태규, 문제훈, 박운철, 배광능, 송시영, 송재덕, 오정훈, 이광식, 이석조, 이한용, 장신용, 조영식

외도동민속보존회 회장 : 문두희 부회장 : 안창중, 현영희
감사 : 김용식 총무 : 안영숙 고문 : 하성효
회원 : 고순자, 고우정, 김경자, 김남희, 김미성, 김분순, 김순자, 김영숙, 김영인, 김인자, 김정숙, 김진옥, 문정희, 박미라, 박정옥, 박희자, 선순옥, 손정하, 안중화, 양복선, 양윤수, 양윤희, 양일심, 오경애, 원정열, 유순기, 이동은, 이명신, 이미경, 이승훈, 이수진, 이숙자, 이정숙, 임외국, 홍옥진, 홍재명

외도동환경조성위원회 회장 : 고영완 부회장 : 오용택, 김성훈
총무 : 김서연 감사 : 주동선, 신경식
회원 : 김용환, 고덕찬, 윤부연, 고영택, 백용관, 김용식, 김윤희, 김영삼, 박형심, 김명철, 홍복자, 강경홍, 임구겸, 양태경, 이봉수, 권순애, 홍영림

외도영농회장 신산 : 강윤방 도평 : 최봉남 내도 : 이익준 월대 : 이종은 절물 : 진영희
연대 : 정덕길 외도1 : 김천수

연합청년회 회장 : 김명필 직전회장 : 김봉진 감사 : 신창훈, 박재수 상임부회장 : 정병철
부회장 : 고봉균, 김성후, 이영철, 한승우, 고정훈, 강영준, 홍봉주
사무국장 : 신학림 재무이사 : 김영범 재무부장 : 김대현 조직이사 : 조민성 조직부장 : 고선익 홍보이사 : 박주홍
홍보부장 : 박현주 홍보차장 : 이진영 환경이사 : 강성근 환경부장 : 이성진 환경차장 : 양근호 체육이사 : 김경남
체육부장 : 김유진 섭외이사 : 이성현 섭외부장 : 고상준 기획이사 : 송시환 대외이사 : 김대혁 대외부장 : 정유철
해소습이사 : 하성봉 해소습부장 : 강석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 심곡2동(자매결연도시) 농산물 직거래 교류

외도동(동장 김태경)과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에서는 12월 20일 자매결연도시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상품의 노지감귤 2,850상자(10kg)를 직거래 판매하였다.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해오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의 장 마련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에서는 2011.9.01(목)~9.02(금) 2일간 주민자치활동 교류와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을 위한 투표 홍보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을 방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는 2005년 3월 10일 심곡2동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박람회나 축제 등에 서로 참석하는 등 매해 자매결연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우수 주민자치센터(순천시 덕연동)를 방문하여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곡2동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주요 시가지 및 관광지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심곡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표참여에 함께하기로 다짐하였다.



♥ 제3회 외도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에서는 2011. 10. 29(토) 월대천 일대에서 외도초등학교 및 도평초등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외도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맑은 물 샘솟는 물의 고장인 외도동에서 “외도사랑 생태환경 가꾸기, 지역명소 알리기, 행복한 우리가족”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릴 적부터 생태환경과 우리가족의 소중함을 키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에서는 2011.11.15(화) 외도동 주요도로변에서 노형지구대(대장 김용학)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및 외도동 자생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차의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1월부터 주차계도반(5개반)을 편성하여 1일 1회 주요도로변 무단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토록 계도를 실시하고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외도동 통장협의회 활동상황

♥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자전거 홍보 캠페인 전개

외도동통장협의회(회장 조은실)는 2011. 6. 09(목) 외도동 일대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자전거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자전거를 이용, 외도동 관내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대한노인회 외도동분회 활동 상황

▶ 회 원 수 : 680여명

▶ 조직목적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 제5회 제주시 노인민속 경기대회에서 종합1위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년 9월 30 일 10:00~15:00 * 장소 : 한라체육관

나. 경기종목과 참가 * 윷놀이, 고리넣기, 토호, 한궁, 민요, 가요 6개종목과 33명의 선수와 220여명의 회원 참가다. 경기결과 * 고리넣기 1위, 민요1위, 종합성적 1위 획득

라. 행사지원 * 동부녀회(회장 김유자)에서는 주식 봉사활동 * 동주민센터 직원 행사장소, 식탁, 의자준비 * 서부, 외도콜(회장 김봉률)의 차량지원으로 전회원 수송지원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자생단체장과 임원이 경기장 응원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어 노인들은 하루를 즐겁게 지냄

♥ 어린이유괴·성범죄 추방운동

각 경로당별로 매월 어린이 유괴, 성범죄 추방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리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외도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부영1차 경로당과 도평경로당에서는 순찰반을 조직하여 주1회 2~3명회원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며 어린이 인권신장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지원하고 맑은 사회를 아우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가을나들이 본도관광

제주요양원(함결원장)주최로 지난 10월 28일 외도동 10개 경로당 200여명의 회원을 대형버스 6대에 편승하여 오전에 선녀와 나무꾼 랜드를 관찰하고 성읍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간식도 제공받으며 오후에는 삼국지랜드에서 소림사 무술공연을 관람하는데 20여명의 제주요양원 직원과 늘푸리 봉사단원 젊은이들이 우리노인들을 편하게 모셔주어 하루를 즐겁게 관광하였음.



♥ 충효교실운영

부영2차 경로당(회장 박창도)에서는 시청자원으로 초등학교어린이를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개설하여 강사(송성윤)초빙하여 7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 한달간 매주 4일간 1시간씩 25명의 어린이에게 인성교육과 주로 서예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품성과 우리 고유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했음.

외도동 자생단체 활동내용

외도동 새마을지도자 활동상황

♥ 세계7대자연경관 남해안 지역 길거리 TOUR 홍보 나서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회장 김기호)에서는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동안 자체 제작한 세계7대자연경관 리후렛을 가지고 『남해안 지역 길거리 tour 홍보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남해안 전쟁기념관 및 주요 관광지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3일간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길거리 tour를 통해 제주도가 반드시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투표에 전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리후렛 4,000부 및 홍보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소 가꾸기” 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회장 김기호)에서는 매달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버스승차대 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관내 버스승차대 19개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전개했다. 금번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버스승차대 가꾸기” 사업으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제거 및 버스승차대 물청소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였다.



외도동 새마을부녀회 활동상황

♥ 다문화가족과 함께 고추장 만들기~

외도동(동장 김태경)과 외도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유자)는 2011.8.26(금)일, 자매결연을 맺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우리 전통양념인 고추장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다문화가족은 고추장만드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외도동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 사랑나눔장터 성황리에 열려~

외도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유자)가 주관하고 동주민센터(동장 김태경)와 각 자생단체가 후원한 2011년 사랑의 나눔장터가 지난 3월 25일(금) 동주민센터 옆 무료주차장에서 지역주민 1천여명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나눔장터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날 하루 장터를 찾으신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점심식사를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잡곡 및 채소 등 고품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넉넉한 장터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우리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화투표 적극 참여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외도동 자생단체 활동내용

바르게살기운동외도동위원회 활동상황

♥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외도동위원회(위원장 고영택)는 매월 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도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등교하는 학생 및 출근하는 동민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외도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상황

♥ 제주서중학교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외도동주민센터(동장 김태경)에서는 6월 15일 동주민센터 2층회의실에서 외도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승제)와 제주서중(교장 부공남)과의 학교폭력예방 네트워크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는 학교와 지역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밝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pc방 등을 돌며 선도활동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외도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제주서중은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외도동 민속보존회 활동상황

♥ 제주올레17코스 관리단체 지정 발대식 개최

외도동주민센터(동장 김태경)는 2011. 11. 08(화)올레코스 구간인 월대천 잔디광장에서 자생단체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올레17코스 관리단체 지정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발대식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외도동민속보존회(회장 문두희)는 담당구간인 창오교~알작지 해안의 환경정화 및 탐방로 훼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탐라문화제 풍물경연 우수상 쾌거

외도동민속보존회(회장 문두희)에서는 2011. 10. 11(화) 제50회 탐라문화제 제주시 축제의 날 행사시 풍물경연에서 단원 30명이 참여하여 제주시19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외도동민속보존회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굿놀이 등 꾸준히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모범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외도동 자생단체 활동내용

외도동 환경조성추진위원회 활동상황

♥ 월대천 꽃 식재

외도동환경조성추진위원회(회장 고영완)에서는 2011. 5. 13.(금) 회원 20명이 참여하여 올레길 17코스의 명소인 외도 월대천을 꽃향기가 가득한 올레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해 다년생 꽃인 페추니아 1,000본을 식재하였다. 특히 외도동환경조성추진위원회는 금년 4월에도 월대천변에 철쭉 및 목련 등을 식재하여 지속적인 월대천 가꾸기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외도동 자율방재단 활동내용

♥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실시

외도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고영완)에서는 우기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총8회에 걸쳐 고사목 및 잡풀이 무성한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지장물 제거사업을 실시하였다.



외도동 연합청년회 활동상황

♥ 어려운 이웃 집수리 봉사활동 전개

외도동연합청년회(회장 김명필)는 2011년 한해동안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방문하여 지붕 도색 및 벽체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외도동연합청년회는 수년전부터 외도동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한부모 가정등 어려운 이웃의 집을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참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제13회 외도동 한마음 단합대회 성황리에 마쳐

외도동주민센터(동장 김태경)와 외도동연합청년회(회장 김명필)에서는 지난 5월15일 외도초등학교에서 제13회 외도동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이 대회는 외도동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일체감을 확인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많은 동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외도동주민센터에서는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침은 물론 전화 투표 및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였다.

기고문

웃프르 문화축제, 농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주민자치위원 김 용 식

우선 김태경 외도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김태규 외도동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8일 청수리 웃프르 문화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면을 통하여 저의 소견을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89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병·의원까지 장애인 무료 수송 및 1년에 한번 장애인 무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농아복지관이 매우 가까운곳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아복지관 분들을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매우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농아 복지관 여러분들과의 1일 체험및 관광은 저에게 매우 좋은경험이 되었기에 다음에는 1일 무료 관광에 농아 복지관분들을 모시고 싶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체험에 아쉬웠던 부분은 농아 분들과 함께 외도-웃프르 축제장으로 이동 할 때 좀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않는 점이 있어 아쉬움이 컸던것 같습니다. 제가 수화를 조금이나마 배워두었으면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을텐데 하고 후회도 됩니다.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활한 대화는 어렵다 치더라도 간단히 수화로 노래를, 노래를 수화로 해보면 어떨까, 그럼 서로간의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제주보육원생들과의 오름 산행, 이번 웃프르 문화축제까지 두 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우리 함께 한발 앞서 나아갑시다. 앞으로주어진 좋은 기회들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조언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분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남 도 기 행

주민자치위원 이 석 조

천년고찰 송광사 노송 그늘 아련 멀리서 온 키작은 나그네
더운 땀 식히고 과나무 숲 작은 암자엔
님 잃은 뻘뻘용 의자 홀로 끌고 있구나
님떠난지 오래인데 오늘도 님 찾는 객은 줄을 잇는구나

육피 안은 낙안읍성 그 모습 도도하고
어디에선가 김빈길 장군 호령소리 귀에 쟁쟁 들리는 듯
정자에 앉아 쉬는 나그네 낙안읍성 넓다하네
지아무리 넓어본들 님과 우리 정보다야 넓은손가

순천만
고운 황금 빛 노을 갈대숲에 널어노니
작년 우리누이 시집갈적 연지곤지 보다 곱구나
하늘엔 검은 큰새와 부리가 노란새가 우리를 환송하네

노고단
휘감아도는 흰 솜털구름은 님의 얼굴 그랬다
지우고 또 그리고
잔 권하는 벗에게 안주없다 타박하니
팔 벗어 지나는 흰 떡갈비 잡아 내 손에 쥐여주네
밭아래 산자락 구레 산정은 고요하기만 하구나

덕연동
질긴 명아주 하나 얻어 허리굽은 할머니 벗삼아 드리려고
메고 온 가방 깊숙이 꼬아 넣고
곱디고운 이들에 정 가슴깊이 새기고
명년 여왕절에 재회를 기약하며 돌아서네

2011년 9월 2일

자매도시 부천시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회과
남도기행을 마치며



기고문

살며 사랑하며 봉사하리라!!

외도동 통장협의회장 조 은 실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고향 제주를 떠나 살던 파릇한 시절엔
이은상님의 '가고파'를 들으면 콧등이 시큰해졌었다.
향수가 가슴을 파고든 까닭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늘 그렇다.
엄마 품처럼 가슴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는 곳.

중년에 이른 내게 있어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
유년의 트랙에서 뛰놀던 추억의 그 순간도 소중하고,
마음크기를 키워준 상아탑의 추억도 귀한 보물이지만
진정한 날 키워준 이 곳 외도동과의 인연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날 우연찮게 생겨난 '외도사랑'은
그야말로 내 인생 후반의 지표가 되어주었다.
열정이 분출되는 적절한 시기에 다가온 신세계는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필요충분조건이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온 내게 도농복합의 외도동은
두말 할 나위없는 무릉도원이었고
인정이 넘쳐흐르는 이 곳 주민들과의 교류도
곧 삶의 활기로 이어졌다.

즐거움이 동반된 일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동안 열심히 외도사랑의 페달을 밟았다.
코드가 맞는 주변 고마운 이들 덕분에 이제는 안팎으로
내 이름 석 자를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두가 "외도사랑" 덕분이다.

앞으로도 계속 적당한 시속으로 외도사랑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외도동에서..
살며, 사랑하며, 봉사하리라.. 다짐해본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나의 의견

전 외도동 연합청년회장 이 성 수

외도동은 주변 읍·면·동에 비해 문화·체육시설이 빈약하다.
2011년11월 현재5,600여세대,15,600여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2000년도 이후 제주시 지역에서 인구 유입률
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조사(제주 발전연구원, 외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19세 이하가 32.5%, 20대11.3%, 30대22.5% 40대15.5%,
50대8.1%, 60대 이상이 10.1%로 분석되어 제주시전체와 비교하
면,외도지역은 10대와 30대의 비율이 취약한 아동을 포함한 청장
년층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상
노인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외도동 문화·체육시설은 외도수영장, 외도인조잔디축구장,
유도회관, 어린이공원10여면, 소규모 게이트볼장 4면 정도가 있다.
하지만 그 활용면에서는 이용제한과 시설의 부족으로 전무하다고
할수있다. 특히,우천시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다.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할수있는곳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조
사(제주발전연구원, 외도동종합발전계획)에서 보통이다37.6%보다
만족하지 않는다 39.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전을 위해 필
요한 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다른 기반시설 사업보다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사됐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 욕구를 수용하고, 화합과 소통의 역할을 할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때이다. 배구, 농구, 탁구, 족구,
베드민턴 등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함으로써 다
양한 계층의 욕구를 해소 할수가 있다. 또한 야외활동을 계획했다가 날
씨로 취소되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회의및 집회
활동을 할수있는공간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외도인조잔디축구장과 연계하여 주변에
공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한다면 향후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하여 수익모
델을 창출할수 있을것이다. 외도동은 사시사철 용천수가 흐르는 월대천과
제주국제공항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전지훈련장으로 이
용할수 있는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략으로 다른곳에서 제공할수 없는 차별화된 전지훈련장으로 명성을 얻
을 것이다. 이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외도동 지역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내체육관 건
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작품

타인의 입장에서 편지 쓰기

※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프영(베트남에서 온 새엄마)의 입장에서 딸에게 편지쓰기

외도초등학교 6학년4반 양 예 린

사랑하는 딸 한별이에게
한별아, 안녕? 나는 너의 새엄마 프영이란다.
혹시 너는 새엄마인 내 이름의 뜻을 알고있니?
바로향기로 방향이라는 뜻이란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향기를 주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뜻이지.
한별아 네가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한별아, 엄마인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나를 낳아준
나의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어. 그러니 너의 마음을 이해
할수 있단다. 진짜로 엄마가 그리운 것이지?
하지만 나도 너의 친 엄마처럼 너를 사랑해 주고 잘 키워 줄
수있어. 그러니 새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으면 해.
그리고 한별아,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창피하니?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하지만 한별아, 그거
알고 있지? 달걀을 검은색으로 칠하든 하얀색으로 칠하든
그 껍질을 까 보면 안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똑같이 있잖아.
우리도 겉으로 너와 많이 달라도 속으로는 한별이, 한별이
아빠, 할머니...모두와 똑같아. 그러니까 한별아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겉모습만 다르지 한별이 너랑
똑같은 거야. 사랑하는 '내 딸 한별아!' 이편지를 읽고 너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해. 그럼안녕.

2011년10월 어느날. 내 딸을 사랑하는 엄마 프영 씬

<교내 도평 가족 독후감 경진대회 금상작>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예요

'종이 봉지 공주'를 읽고

도평초등학교 2학년 김 수 현

매 주 화요일 2교시, 동화 이야기와 함께 하는 논술토론 시간을 나는 무척이나 좋아한다. 논술 선생님께서는 매 주 한권의 책을 우리들에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어 주시고 그 책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종이 봉지 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라고 하시며 책을 보여 주실 때부터 '종이 봉지 공주가 뭐지? 이름이 희한하네.'

라는 생각과 책표지 그림에 용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내가 읽었던 백설 공주, 엄지공주와는 완전 다른 공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공주 이야기는 예쁜 드레스 차림을 하고 있는 공주의 모습에 반한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공주로 성에 살았고 로널드 왕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이 나타나 성을 부수고 공주 옷을 몽땅 다 태워 버리고는 로널드 왕자를 잡아 갔다. 공주는 입을 옷이 없어 주위에서 종이 봉지를 주워 입고 왕자를 구하려 동굴로 갔다. 용은 공주에게 속아서 몸에 있는 불꽃으로 백오십의 숲을 태우느라 불씨가 남지 않았고, 세상을 10초 만에 두 번 갔다 오더니 지쳐서 쓰러져 버렸다. 나는 왕자를 구하기 위해 지혜롭게 피를 내어 용과 싸운 종이 봉지 공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주가 용을 잠재우고 로널드 왕자를 구하려 동굴로 갔지만 왕자는 더러운 종이봉지를 걸치고 있다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만 하였다. "그 꼴이 뭐요? 나는 당신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화를 내며 진짜 공주처럼 예쁜 옷을 입고 다시 오라고 하였다. 종이 봉지 공주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왕자는 용의 먹잇감이 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나는 왕자의 이런 행동을 보고 겉이 멋있다고 마음씨가 다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이 봉지 공주는 왕자에게 "당신은 옷은 제대로 입었지만 마음은 거지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겉데기....." 라고 말하며 결혼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약속한 왕자를 구하기 위해 남자보다 더 용감했고, 바보 같은 왕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지혜롭다. 왜냐하면 왕자는 얼굴은 잘 생겼지만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비록 종이 봉지 옷을 입었지만 가장 행복해 보이고 예쁜 모습이고, 왕자는 비싸고 멋진 옷을 입었지만 바보 같은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종이 봉지 공주 이야기를 엄마께 들려 드렸더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엄마는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더라도 친구를 괴롭히고 나쁜 말을 하면 얼굴이 못나게 보이고, 얼굴이 좀 안 예쁘도 예쁜 말과 착한 행동을 하면 얼굴이 점점 예쁘게 보인다." 고 하셨다.

엄마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맞는 것 같다. 우리 반에도 멋지게 생긴 남자가 많지만 나쁜 욕을 쓰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애의 얼굴이 보기도 싫다.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체육 활동이 없는 날엔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학교에 간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왕자처럼 옷만 멋지게 입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어린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작품

<제주시 학생 독서상 공모대회 동상 수상>

민주야, 힘내! ('가시고기'를 읽고)

외도초등학교 5학년1반 백 수 빈

백혈병!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른다. 그런병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촌오빠가 백혈병에 걸렸다.내가 사랑하는 친구 민주는 '소아암'에 걸렸다. 세상에 이럴수가! 그래서야 백혈병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에 읽었던 '가시고기'의 다ؤ이와 다ؤ이 아빠가 생각났다.

'가시고기'에 나오는 다ؤ이의 아빠는 다ؤ이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다ؤ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다ؤ이의 병 치료를 위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긴다. 다ؤ이가 프랑스에 안전하게 간것을 확인한 후엔 치료도 받을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져서 숨지고 만다.

민주와 사촌오빠의 병 소식을 알기 전과, 알고 난후의'가시고기'에 대한나의느낌은 정말 달랐다.사촌오빠와 내친구 민주 두사람 모두 나에게서는 소중한 특별한 사람들이다. 내가 다ؤ이의 아빠가 된 심정이였다. 그저 "책속의 이야기니까 이러겠지" 하고 읽었는데 민주는 정말 좋은 아이였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넓고 남에게 늘 양보하며 항상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 애 곁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아이랑 내가 단짝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언제나 기분이 좋았고 어깨가 절로 으쓱했다.



그런데 이런 착한 민주에게 그렇게 무섭다는 암이란 병이 생기다니..... "수빈아!나 치료받기 싫어. 너무 힘들고..... 수술하는건 너무 아프고 무서워!" 전에 민주가 했던말이 생각나 가슴이 너무 아팠다. 다ؤ이처럼 누가 민주를 도와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느날 민주는 "수빈아,나학교가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친구들이 나 놀리면 네가 막아줘!" 라고 부탁했다. 순간 그게 내가 민주에게 조금이나마 해줄수 있는일이라고 생가 되었다.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 민주가 학교에 나오면 놀리지 말아달라고 민주를 놀리는 애가 있으면 같이 말니자고.....

나는 솔직히 자존심이 세서 부탁도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민주를 위해 내가 할수있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 정도는 문제가 아니였다. 민주는 소아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싸워 꼭이길 것이다.지금도 치료가끝나지않아 수술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완치율70%라고 소아암! 힘들게 병과 싸우다 이긴 민주가 학교에 돌아오면 친구들이 병 애기를 하며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민주에게 한발 더 따뜻하게 마음으로 다가가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것이다.

'가시고기'의 다ؤ이 아버지가 떠오른다. 하늘나라에서 잘지내고 계실까? 다ؤ이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다ؤ이도 얼마나 아빠가 보고싶을까?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다. 모두 내곁에 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안듣고 오빠와는 계속 다투고 있다. 정말 부끄럽다. 민주와 다ؤ이 처럼 아픈상황에서도 의젓한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 철없이 굴었다. 민주를 위해서라도 의젓한 수빈이가 되어야겠다.

민주야,힘내! 나도 이제는 의젓해 질게!

작품

서예교실작품



제3회 외도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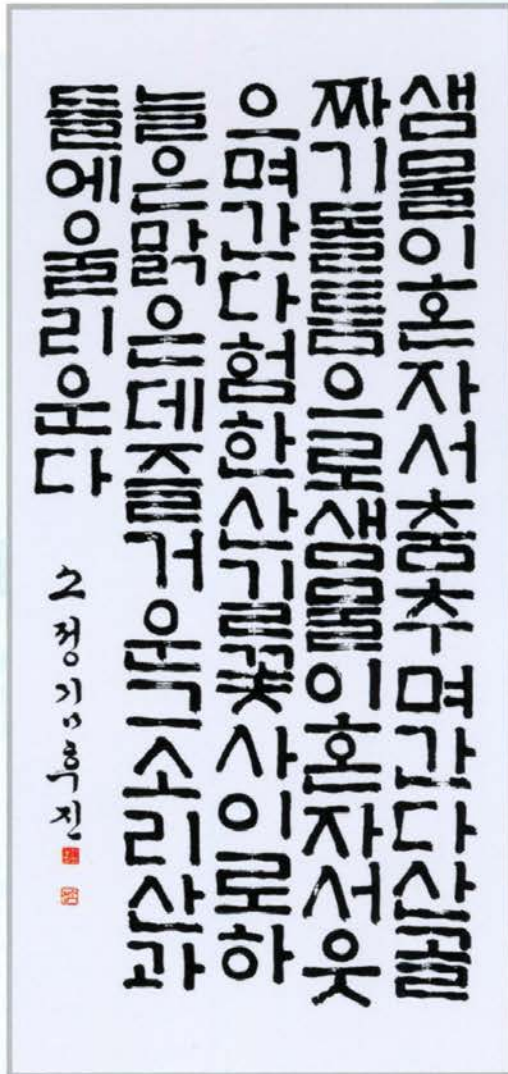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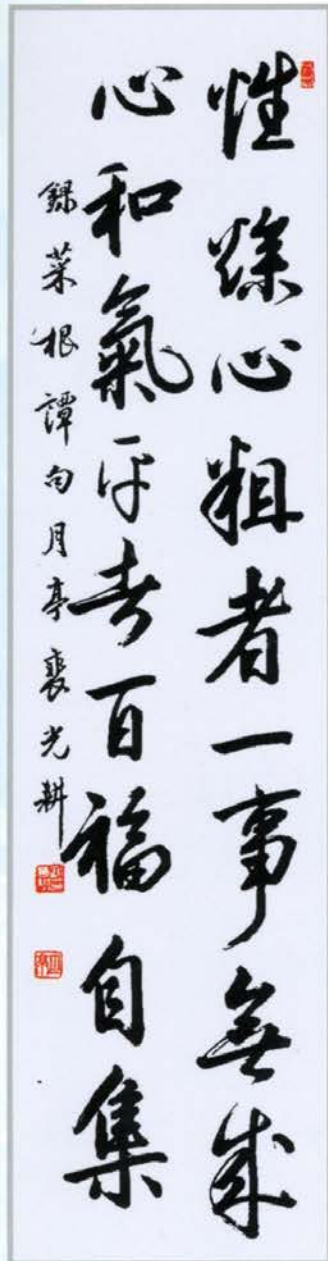
대상 도평초등학교
3학년 동백반 지민재



금상 외도초등학교
5학년 6반 고정우



금상 외도초등학교
2학년 3반 노하영



▲ 채근담 구 풀이

조급한 사람은 실패한다.

성질이 조잡할뿐더러 마음이 조잡스러운 사람은 한가지 일도 성공시킬수 없고 마음이 온화할뿐더러 기질역시 편안한 사람은 백가지 복이 절로 모여 다가온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성금 기탁자 명단

기탁자	금액(원)	기탁자	금액(원)	기탁자	금액(원)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520,000	대원암 주지 범산스님	100,000	진영마트 대표 강은희	1,000,000
외도축구회(회장 이승제)	100,000	황재돈 대표 김원호	100,000	외도동 방위협의회	1,000,000
한울축구회(회장 최영준)	72,800	사또네 대표 변상진	50,000	월대 마을회	200,000
외도동 자율방재단	200,000	김성진(외도1동)	20,000	월대 청년회	100,000
외도동 청소년지도협의회	300,000	현영희(도평동)	20,000	월대 새마을부녀회	100,000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외도동 추진위원장 이승제	310,000	고덕찬(외도1동)	30,000	월대 노인회	100,000
연대 마을회	150,000	세한건설(주) 대표 강문철	300,000	(주)석정종합건설 대표 정윤희	1,000,000
김영호, 이석조, 고진옥, 김태규, 강문철	70,000	재웅종합건설 대표 문재석	200,000	해미안일식 대표 선미순	50,000
박운철, 강순신	20,000	외도부영2차 입주자 대표회	100,000	절물 마을회	100,000
FIRA수산자원사업단 이학박사 윤장택	300,000	제주시농협 서부영농 지원센터	150,000	절물 청년회	100,000
외도동 주민센터	230,000	무한정해장국 대표 김선민	50,000	절물 부녀회	100,000
외도동 통장협의회	300,000	사토비치펜션 대표 이정자	100,000	나라돈까스 대표 양미영	100,000
외도동 새마을부녀회	200,000	외도건설기계공업사 대표 한석화	100,000	도평동 새마을부녀회	50,000
내도 마을회	1,150,000	블루베이펜션 대표 송재덕	1,000,000	서광축산영농법인 대표 강봉주	200,000
외도동 바르게살기위원회	230,000	제주서부새마을금고	150,000	크라운마트 대표 고광표	300,000
외도동 바르게살기위원장 고영택	100,000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규	100,000	세계7대 자연경관 외도동추진위원회 사회복지 종교분과(고진옥, 안창준, 김재일, 이한용, 김경보)	100,000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600,000	수바루 대표 김원유	50,000	밝은뜨락 어린이집 원장 김창숙	100,000
새마을지도자 외도동협의회	250,000	외도동 마을회장 협의회	200,000	금정종합건설(주) 대표 윤성희 · 윤성택	2,000,000
일우한란 아파트 자치회	100,000	도평동 영농회장 최봉남	20,000	도평 노인회	50,000
세계7대자연경관 외도동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장 김영호	100,000	기아오토류의도점 대표 김정남	100,000	형제자동차공업사 대표 김경보외 직원일동	200,000
신세기건설안전(주) 대표 고찬현	300,000	주)이디컴 대표 고맹종	300,000	외도1차부영입주자 대표회	100,000
푸르네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안정환	50,000	한라크레인 대표 이현	100,000	외도1차부영 부녀회	100,000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150,000	우리들약국 대표 백순영	50,000	외도1차부영 노인회	100,000
참사랑소아과의원 원장 이지원	100,000	한국전자 대표 김택중	50,000	LS전선(주) 제주현장소장 문후순	500,000
도평어린이집 원장 신명숙	100,000	나베식품 대표 김억조	50,000	이남림(외도1동)	300,000
오성레미콘(주) 대표 오영진	500,000	광제사 주지 범우스님	100,000	건우건설(주) 대표 김계완	500,000
삼성주유소 대표 방주원	1,000,000	외도1동마을회	200,000	신성식(외도2동 전복양식단지)	100,000
신토계 대표 송용협	20,000	외도1동 새마을부녀회	100,000	연대마을 부녀회	100,000
도평 마을회	100,000	외도1동 청년회	100,000	건축사무소 오영 대표 임태근	100,000
대성초음파 대표 신종현	100,000	외도1동 노인회	100,000	최봉호(도평동)	30,000
웅기장이 어린이집 원장 양순애	50,000	외도동 환경조성위원회 간사 김서연	35,200	해미안사우나 대표 조영식	500,000
외도 온누리약국 대표 강은실	50,000	한경상사 대표 김덕훈	100,000	외도 여촌계	100,000
외도동 민속보존회	200,000	김지웅(외도1동)	50,000	탐라닥트기업사 대표 송시영	100,000
대진가스 대표 안창준 · 고영실	200,000	강연백(외도2동)	50,000	(주)무등판넬강판 대표 이광재	1,000,000
제주은행 외도지점	150,000	대한노인회 외도동분회	100,000	현대로지엠(주) 제주지점 양경우	200,000
세계7대자연경관 외도동추진위원회 위원 이광호	100,000	외도단란주점 건물주 이용식	30,000	한국물류 대표 강동훈	300,000
세계7대자연경관 외도동추진위원회 위원일동	400,000	외도동 연합청년회	300,000	김대감갈비 대표 김재일 · 정길숙	100,000
신진기업사 대표 정병식	530,000	외도철물 대표 이대원 · 김영신	100,000	고정숙(외도1동)	30,000
도평하동 새마을부녀회장 한순자	50,000	은어의 집 대표 김기호 · 김진화	100,000	외도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서예교실 교육생일동	100,000
고경수(외도1동)	50,000	신산 마을회	100,000		
외도식당 대표 강정자	200,000	서부외도 호출봉사회	200,000		
도평골프연습장 대표 문도은	100,000	내파도리펜션 대표 김성섭	100,000		